재교육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제도 도입

■ 6대 교육원 평가와 과제 ⑦ 상설화된 연수교육

종전의 연수교육은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이나 '고급 및 중진 스님 지도자과정' '중진주지연수' 등이 전부였다. 주지 소임을 맡는 일부 스님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연 1회 열리는 형태이다 보니 교육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런 연수교육이 달라진 것은 2010년 8월부터다. 6대 교육원(2009.11~2014.10) 출범 후 연수교육이 대폭 정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재교육시스템을 갖추고 평생교육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등을 개정해 교육을 의무화했다.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을 기본 교육장으로, 연중 연수교육을 상설화했다는 것 또한 달라진 점이다. 이와 함께 상세한 강좌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수강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교육 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를 신설했다.

초창기 일반강좌와 인증과정, 자원봉사활동과정으로 구성된 연수교육은 차츰 진화했다. 5년차를 맞는 지금은 법계별 연수교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일반연수과정, 순례과정, 자원봉사과정, 인증과정 등 6개로 구분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법계별 연수교육은 승납 5년부터 29년 사이의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승납별 특성화 교육이다. 법계별로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마련, 지역과 종단의 지도자로서 스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1급, 2급,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 내 1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다.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처음 주지 소임을 맡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으로 연간 4~5차례 진행된다. 사찰운영, 재정 화계교육은 물론 불교관련 국가법령, 성보문화재 보존관리, 전법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일반연수과정은 경전, 어록을 연찬하거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교양강좌,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생활의례, 명상상담, 스피치 등 전법강의로 이뤄져 있다.

2010년 도입 후 빠르게 정착
법계별 일반 순례, 자원봉사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인증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다채

스님들 참여율 해마다 늘어나
올해 4700여 스님 이수할 듯
교육비 낮추는 게 향후 과제

2012년부터 도입된 국내외 순례과정은 스님들의 참여가 높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외순례의 경우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며 순례하는 시간이라 순례효과도 크다.

인증과정과 자원봉사활동과정도 해마다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연수교육 참여인원 가운데 25%가 인증과정을 수료하거나 종단 산하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연수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연수교육은 빠른 속도로 정착했다. 첫해 2010년 1500명 스님이 연수교육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800명, 2012년 3800명, 2013년 4000명이 각각 연수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원 연수팀에 따르면 올해 연수교육 이수 인원은 4700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스님을 1만 여명으로 보고, 연수교육 의무참가 대상이 아닌 사미 사미니 스님 1200명, 승납 30년 이상 종사 스님들이 4000 여명을 제외하면 모든 스님들이 연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미국동부 특별교구는 거리적 한계를 고려해 별도 연수교육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종단 연수교육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연수교육이 안착되면서 교육원은 권역별 연수교육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문화연수원과 목동 국제선센터,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외에 통도사 자비원을 교육공간으로 활용, 영남권 스님들의 편의를 돕는다.

연수교육비를 낮추는 건 지속적인 과제다. 연수교육이 시작된 이래,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고, 오고가는 비용을 감안해 교육비를 적게 책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승납 10년 미만인 스님에게는 수강료 50%를, 승납 10년 이상인 스님에게 수강료 25%를 지원해주고 있다. 여전히 많은 스님들이 연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중앙·교구 균형발전으로 종단미래 준비"

교구본사주지회의 개최

내년 중앙분담금 '동결'
총무원 종단 현안 공유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결의문도 채택

총무원은 지난 21일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편성을 비롯한 종단 주요현안을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교구본사주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과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 종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총무원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포교원을 비롯해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등 종앙종무기관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총무원 기획실이 보고한 불기2559(201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편성안이 눈에 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 대비 2% 증가한 240여 억원으로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고려해 편성됐다. 중앙분담금은 동결됐으며 각종 세입 감소, 중점 전력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 사업비, 인건비 등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예산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제16대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4대 집행부는 총본산 성역화를 통해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고, 스님들의 장래를 위해 한층 복지를 장려할 것"이라며 "중앙과 교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종단의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구본사의 행정 강화를 중요 사업으로 설정해 종무행정의 개선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세수 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결계신고를 마친 구족계 수지 스님들로 확대한 가운데 국가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를 비롯해 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수행에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재무부는 전통사찰이 농지를 전용해 불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신청 절차 안내를 비롯해 중앙분담금 배정 등 사찰 종무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포교원은 교구본사에 신도교육과 신행에 따른 종단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신도발심품계 등록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전국 교구본사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의승의 뜻을 계승하는 기념일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김선근 교수 새 이사 선출

동국대 총추위 구성은 연기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2015년 2월로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스님)는 지난 20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85회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계획안을 주요 보고사항으로 다뤘다.

제18대 총장 선임 계획안에 따르면 선임 절차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 총장 후보자 초빙공고 및 지원서 접수, 총장 후보자 3~5인을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총추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추천위원 4명과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회 저명인사 3명, 교원 12명, 직원 4명, 동문위원 2명, 동국대 학생 등 총 2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총추위 구성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 관계자는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현재 동창회가 두 개로 나눠져 소송 중"이라며 "22일 총추위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어느 동창회로 공문을 보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이사회를 통해 동문회원 추천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매듭지은 뒤 본격적인 총추위 구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표결을 거쳐 신임이사에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다음 이사회는 오는 28일 오전10시30분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소집 촉구

34명 '교수 강사 모임'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운영위원장 사퇴 촉구

비구니 교수와 강사 34명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추천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열린비구니회'를 지지하며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각스님과 능인스님 등 34명의 비구니 교수와 강사 스님이 참여한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강사 모임'은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문제 등을 제기한 열린비구니모임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교수 강사 모임은 "열린비구니모임의 행보는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파행적 모습이 발화됐지만 종회의원 선출에 대한 불만을 품은 갑작스런 일은 아니다"며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제10대 비구니회 집행부가 과연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지 의구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교수 강사 모임은 이어 "지금이라도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는 용기 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비구니회 임시총회를 속히 소집하고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탁 기자

'봉은사 오층석탑' 〈1면에 이어〉

봉은사는 오는 2015년 5월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고려석탑을 이운해 오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뒤 주지 원학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한 '창경궁 소재 고려석탑 이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봉은사는 24일 윤9월 초하루법회에 이어 봉행하는 기원법회를 통해 성보지킴이를 발원하고 창경궁 고려석탑 이운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원학스님은 "오층석탑의 소장 적정 장소로 천년고찰이자 서울의 대표 가람인 봉은사로 봉안하는 게 봉은사 대중들의 결의인 만큼 오층석탑이 여법한 부처님도량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 신청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종단 지정 방식을 통해 종단 내에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유산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의 전승자 및 전승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접수방법 개인과 단체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부에 공문으로 신청
(지정신청서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게재)

● 접수마감 2014년 **11월 21일**(금)

●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의 기본원칙

1. 불교적인 가치의 구현
2.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 발전
3.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증진

●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내용

1. 불교의 의례, 의식
2. 불교 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전통 기예
3.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4.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5.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6.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 문 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전 화 : 02-2011-1774
이메일 : zip82kor@buddhism.or.kr

● 지정절차

신 청 ⇨ 전승자 및 전승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연혁, 행사진행, 전승방법 등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해서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

조 사 ⇨ 접수된 예비목록 중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성보보존위원회 심의, 현장조사 후** 해당 종목의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인정 실시

지 정 심 의 ⇨ 지정종단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회의와 현장조사는 성보보존위원회**에서 하고 지정권고함. 지정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함

지정결과발표 ⇨ 심의결과는 지정심의 회의 후 다음해 3월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